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동양철학자가 본 386세대의 허위의식

[발제자] 임건순 동양철학자

[지정토론자]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일 시] 2019년 11월 21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329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386세대란 50대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념으로서, 계급으로서 386을 의미한다. 386은 전교조, 민노총, 전공노, 민변, 참여연대 등으로 조직되어 문화, 예술, 출판을 장악하고 재력과 발화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 386세대는 도덕적인 것이 정치에서도 우월하다고 보는 도덕환원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유능함과 문제해결 능력·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민주화 투쟁의 경험과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발화 권력을 통해 대중에게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다. 386세대는 도덕과 정의를 명분으로 하기에 항상 거약의 존재를 요구한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미제국주의, 그리고 지금은 거대재벌이다.
- 담론시장 역시 386세대가 장악하고 있다. 386세대의 지지자들은 60년대생, 80년대 학번, 고학력,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이들은 386세대의 언어와 사상으로 교육받아왔으며 강한 조직력과 행동력, 소비문화권력을 갖추어 한국사회 지배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 이제 386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계관과 상식을 갖춰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 386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담론의 장에서 어떻게 非386세대의 지식연대와 담론의 장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 386세대가 아닌 사람들의 지식을 어떻게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지정자 토론) 386세대는 87체제의 소유자이다. 386세대가 현재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에는 87체제가 있다. 좌파는 민주화 운동과 87체제를 통해 많은 상징자산을 확보했고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은 완전히 교체되어 좌파가 장악했다. 좌파의 상징자산은 '문화'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최종적으로 탄핵과정과 문 정부의 집권으로 실물체제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 현대정치의 핵심은 정당정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우파 좌파는 모두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실천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의 주요 정당에는 진정한 당원이 없다. 진정한 당원이 없기에 리더십을 당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인력 또한 없다. 그래서 '정치 자영업자'들을 외부에서 수혈하고 있다. 진정한 정당정치를 위해서는 당내에서 정치 리더십을 키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의 핵심이다.

◆ 386세대

- ◆ 386세대는 지금 50대가 되어 자신들의 생애주기에 맞춘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다. 자사고·국체고, 로스쿨의 폐지 기한과 정년연장은 386세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주기에 맞추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 386세대란 50대 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념으로서, 계급으로서 386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지금도 젊은 386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다. 386은 전교조, 민노총, 전공노, 민변, 참여연대 등으로 조직되어 문화, 예술, 출판을 장악하고 재력과 발화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한국사회 대부분의 신문, 칼럼, 마이크, 펜을 장악하고 있다.

◆ 386의 전근대성

- ◆ 386세대는 모든 것을 도덕으로 환원시켜 상대방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도덕환원주의적 의식이 팽배해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유능함과 문제해결 능력·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민주화 투쟁의 경험과 도덕적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의와 도덕을 담보하는 발화 권력을 통해 대중에게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다.
- ◆ 386세대는 도덕과 정의를 명분으로 하기때문에 항상 거약의 존재를 요구한다. 과거에는 군사정권, 미제국주의, 그리고 지금은 거대재벌이 그러하다. 피해자와 약자의 가면을 쓰고 위정척사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있다.
- ◆ 한국사회는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코드이지만 심층에는 무속적 코드가 잠재되어 있다. 386세대는 이를 이용하여 죽음을 서사화하고 망자들의 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국면을 전환하거나 정치적 선동을 이끌어낸다.
- ◆ 386세대의 전근대성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분하여 담론화하는 데 있다. 또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물개인주의와 사제주의, 정치와 도덕을 분리하지 않고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각 분야에 대한 이해보다 도덕적인 우수성을 갖춤으로 정치와 경제의 영역도 장악할 수 있다는 명분을 추구하고 있다.

◆ 386문제의 근본과 지지층

- ◆ 386문제의 근본은 노동시장의 이중성에 있다. 비정규직과 2030세대의 실업문제의 근본은 386세대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특권과 기득권, 지대추구에 있다. 때문에 2030세대는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전전공공하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낸 정규직의 악성적 지대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담론시장 역시 386세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 ◆ 386세대의 지지자들은 80년대생, 고학력,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많다. 이들은 386세대의 언어와 사상으로 교육받아왔으며 강한 조직력과 행동력, 소비문화권력을 갖추어 한국사회 지배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 대상에 대한 이해와 이들에 초점을 둔 정책과 방향 역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 이제는 누가 386의 대안으로 등장해야 할 정치세력들이 386을 대항하기 위해 어떤 세계관과 상식을 갖춰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대비해야 한다. 386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담론의 장에서 어떻게 非386세대의 지식연대와 담론의 장을 개척

해 나갈 것인지, 386세대가 아닌 사람들의 지식을 어떻게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지정토론자의 토론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 ◆ 386세대에 대한 비판이 담론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86세대는 87체제의 소유자이다. 386세대가 현재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배경에는 87체제의 성립이 있다. 87체제의 본질을 알아야 386패권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 수 있다.
- ◆ 87체제는 좌파의 정치적 승리를 우파가 정치공학적으로 저지해낸 결과물이다. 좌파의 직선제 개헌 투쟁 승리를 6.29선언으로 우파가 저지한 것이다. 그래서 우파가 정치권력의 실물체제를 지켜낸 것이다. 때문에 87년 초반 좌파의 정치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우파가 대한민국 권력의 주류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우파의 정치적 입지는 취약했다.
- ◆ 좌파는 민주화 운동과 87체제를 통해 많은 상징자산을 확보했다. 상징자산은 정치세력의 도덕적 명분, 정당성을 긴 설명 없이 대중들에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 자신의 정당성을 복잡한 설명 없이 대중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세력을 주류세력이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은 완전히 교체되어 좌파가 장악했다.
- ◆ 좌파의 상징자산은 주로 실물경제보다는 ‘문화’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했고 최종적으로 탄핵과정과 문 정부의 집권으로 기존 실물체제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87체제 성립 이후 반일, 반미 정서가 극대화되고 중북친중세력의 영향력이 점차적 확대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386세대의 상징자산은 좌파, 중북친중세력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무기이다.
- ◆ 현대정치의 핵심은 정당정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우파·좌파는 모두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실천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정치의 주요 정당에는 진정한 당원이 없다. 진정한 당원이 없기에 리더십을 당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인력 또한 없다. 그래서 ‘정치 자영업자’들을 외부에서 수혈하고 있다. 때문에 진정한 정당정치를 위해서는 당내에서 정치 리더십을 키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정치의 핵심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